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의 교수경험 탐색

윤주석¹, 이상행^{2*}¹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²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Exploring Beginning youth Football Coach's Experience in Teaching

Ju-Seok Yoon¹, Sang-Haeng Lee^{2*}¹Student, Jeonju University²Professor, Sports for All Department of Jeon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교수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수경력 10년이상, 지도경력 5년 미만,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 C급 이상 취득자 중 U-12팀에 등록된 지도자 4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 범주와 분석단위를 범주화하였고, 귀납적 방법을 통해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유소년축구지도자들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나는 안그래야겠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짐으로 지도자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도 현장에서 의사소통방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부족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르침에서의 보람을 느끼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소년 축구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도자양성제도 내 프로그램 개선을 논의하였다.

키워드 : 유소년 축구지도자, 초임 축구지도자,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교수경험, 전문적 성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eaching experience of first-time youth soccer leaders. To this end, four leaders registered in the U-12 team were selected from those with more than 10 years of player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of coaching experience, and a level C or higher of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leader's license. Accordingly, the analysis categories and analysis uni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n inductive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youth soccer leaders were starting their coaching with the mindset of "I shouldn't" and "I can do it" based on their past experiences. They who concerned their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in the teaching field were struggling with how to communicate with student and were less professional in teaching and learning ability. but they were trying to gain expertise while feeling rewarded in teaching. Accordingly, it was discussed to improve the treatment of youth soccer leaders and improve the program that is the leader training system.

Key Words : Youth football coach, First-time youth football coaches, Youth sports instructors, Experience in teaching, Professional development

1. 서론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서, 우리나라는 2002 한일 월드컵 4강, 2012 런던 올림픽 4강, 2019 U-20 월드컵 준우승 등 우수한 실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축구협회 및 국가적 차원의 노력 이면에 일선 학교 및 클럽 현장의 축구지도자들이 우수한 선수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1]. 최근 들

어 대한축구협회에는 325개의 국내 유소년 축구팀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선수는 7,303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1년에 조사된 유소년 등록 선수 4386명과 비교했을 때 약 2500여 명이 증가한 수치로 과거보다 더욱 많은 유소년 선수들이 축구를 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2]. 유소년 축구 참여자들이 우수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축구 지도자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강조된다.

2020년 대한축구협회 등록기준 지도자 현황을 살펴보

*Corresponding Author : Sang-Haeng Lee(shlee@jj.ac.kr)

Received September 27, 2022

Accepted January 20, 2023

Revised December 1, 2022

Published January 28, 2023

면, 남자 2,864명, 여자 126명으로 총 2,990명의 지도자가 각각의 소속팀에서 활동 중이며, 그 중 유소년 지도자는 학원부(초등) 241명, 클럽부(Under12) 540명으로 총 781명의 유소년 지도자가 현장에서 유소년 축구 참여자들을 지도하고 있다[3].

지도자는 지도 대상의 신체 활동 목표 설정, 교육 활동 내에서 촉진자, 중재자, 격려자, 동기유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은 학습자의 성격 및 집단 구성원의 학습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4], 특히 지도자는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깨닫고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게 하고 스포츠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 및 클럽 운동부 감독 및 코치와 같은 스포츠 지도자들이 유소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

실제, 한국 축구의 발전은 학원 및 클럽축구 육성과 변창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도자의 체계적인 선수 지도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일선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고용불안과 급여 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6,7].

스포츠 지도자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어려움[8], 스포츠 강사의 삶 [9,10] 등 스포츠 지도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개선 방안을 통한 지도자의 스포츠 교육 활동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소년 축구 지도 현장과 관련해서도 선진 유소년 축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발전을 위한 연구[6,11]와 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와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12,13] 등 유소년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소년 축구 지도현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육 주체인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고충을 통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교수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환경적, 상황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유소년 축구지도자 및 운영진들이 효율적인 교육 활동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이며,

더불어 유소년 축구지도자와 관련된 심층적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비대표적표본(non-representative)에 의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기준 지도경력이 5년이 넘지 않은 지도자로 한정하였고, 코치로서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경력 10년 이상,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 C급 이상 취득하여 U-12(초등학교)팀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로 한정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초임 유소년 지도자들 중 4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참여 의사를 물어본 후, 동의한 지도자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는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 중에서도 일정 정도의 교수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터뷰 진행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인터뷰의 주제와 관련된 스키마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인터뷰 가이드를 배부하였다. 또한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 참여자의 이해도 혹은 답변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병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1~2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시작 전 녹음을 하여 녹음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정리하였다.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인터뷰 외 추가적인 질문이나 개방적인 분위기의 비공식 인터뷰(informal interview)를 병행하였다. 각 면담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사전 연락을 통해서 면담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채택하였다. 개별인터뷰 형태로 각 인터뷰는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든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가능한 노출 시키지 않아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인터뷰 과정에서의 메모와 녹음된 인터뷰의 전사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코딩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 범주를 도출하고 연구 문제에 따라 분석범주와 분석단위를 설정하여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코딩을 통해 자료를 한곳으로 모은 뒤, 코딩된 자료를 계속 비교하면서 비슷한 주제의 자료를 분류하여 자료의 코딩 이름을 새롭게 목록화한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로 분류된 목록 내 자료에서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 각 범주의 이름을 표현하고, 이를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재구조화하였다.

2.3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절차 및 인터뷰 중 응답을 거부할 권리, 익명성 보장, 비밀보장 등이 제시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최소화하였다.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와 1:1 인터뷰(심층면담)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 연구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 자료를 데이터화 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헌 연구와 각종 매스컴을 통한 1차 조사자료와 참여자들의 녹취와 전사 본인 2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특성과 경험을 파악하는데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둘째, 연구 설계 과정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경험한 전문가 1인의 도움을 받아 자료 분석 및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 얻은 녹음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전사본과 분석내용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읽어볼 수 있게 확인하는 검토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스스로 면담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자로 인한 주관성 견해를 통한 자료 분석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정할 내용, 잘못된 내용과 추가를 희망하는 내용 등에 관한 견해를 재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집된 자

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 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의 교수경험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4명의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조사한 면담 내용들을 토대로 이들의 경험적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3.1 지도자로서의 첫걸음

3.1.1 나도 해봐야겠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과거의 경험, 선수시절 자신들이 겪었던 지도자에 대한 아쉬움과 보조교사로서 수행했던 경험이 지도자가 된 계기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지도자가 될 생각이 없었지만 '지도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시기에 자신의 과거 경험 속 감정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아르바이트로 취미반을 지도하면서 취미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뿌듯했고, 내가 어릴 때 잘 못 배웠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좀 더 좋은 훈련, 좋은 프로그램, 좋은 지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도자를 시작한 것 같아요. (C 지도자 인터뷰 중)

연구참여자들은 어릴 적 동경해오던 지도자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지도자를 떠올리며 선수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그런 동기와 경험이 결합 되어 전문적인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3.1.2 나는 안그래야겠다

지도자로서의 첫 경험은 부담도 있었지만 잘하고자 하는 욕심 또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강압적으로 지도를 받았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훈련이 되도록 노력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교육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줄까 효율적인 걸 찾으려 했었지... 옛날에는 맞고 뛰고 했던 것들로 인해서 강압적인 게 컸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중략)... 어린선수들에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 결국엔 아이들을 위해서... (A 지도자 인터뷰 중)

이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방향, 좋은 선수, 지도자로서의 부담과 동시에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가졌다. 선수들을 대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생각하며 체벌과 욕설이 아닌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선수들을 지도하였으며, 축구를 시작하는 어린 연령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좋은 선수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고, 그에 따른 훈련들을 구성하고 팀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었다.

3.1.3 나는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선수의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 지도자들은 오감을 활용한 훈련, 흥미를 잃지 않는 경기 위주의 훈련,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훈련 등 창의적이고 흥미와 재미를 중심으로 훈련을 구성하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도자 재교육이나 연수와 같은 활동 참여가 유소년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축구를 접하는 시기에 '힘들다', '고되다'라는 이미지 보다 축구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경기위주의 훈련으로 실전처럼 재밌게 흥미를 잃지 않도록 훈련 중에 많은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구성하고 있어요. (B 지도자 인터뷰 중)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경험만 가지고 지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지도자가 된 후에 다양한 교육을 받아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방법을 알게 되었고 시행착오를 통하여 연령이 어린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훈련을 구상하고 그것들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지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지도자 재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축구에서는 '보수교육'이라고 불리며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지도자의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온/오프라인 교육을 말한다. 보수교육은 지도자 자격을 "유지(갱신)"하거나 혹은 다음 지도자 자격으로 "승

급"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제도이다[3]. 국내 지도자활동에는 KFA경기 지도자 보수교육, 시도협회, 산하연맹 주최 보수교육과 국내 스포츠 단체 교육 및 연수가 있으며 교육 일정은 별도로 공지한다. 주요 내용은 코칭 방법론, 경기규칙, 심리학, 트레이닝론 등을 다룬다.

지도자 교육을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러 들어가고 대회도 나가보고 경험과 시간, 교육들이 쌓이다 보니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 (A 지도자 인터뷰 중)

처음 지도할 때보다 교육을 많이 들어 가다보니 내가 알던 것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B 지도자 인터뷰 중)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정체 되길 원하는 지도자는 없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해외연수 및 해외 지도자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하여 훈련과정을 습득하여 실전에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교수경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 초임 유소년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는 안 그래야겠다.'라는 개념 하에 지도자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 보수교육 시스템을 잘 받아드리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변화하고 노력하는 지도자로서 전문성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2 지도에서의 교수경험

3.2.1 벽에 부딪히다

3.2.1.1 교수-학습 방법 측면의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탓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갈등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 간의 기량 차이가 나다보니 어떻게 어떤 수준에 맞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커요. (C 지도자 인터뷰 중)

어린 선수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심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수준에 맞는 언어선택, 제스처 등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D 지도자 인터뷰 중)

“체육 수업 중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실상(realities)’을 경험하므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방해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4].”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지도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크게 나타난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 유소년 지도자들은 훈련의 난이도 조절 및 피드백 방법에 대한 지점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는 유소년 지도자로서 가져가야 할 흥미위주의 교육방법과 선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문적인 훈련 방법을 도입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지도자는 가르치는 선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축구선수로서 꿈을 키우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는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교육방법이 흥미만 중시할 수도, 축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통합적인 교육방법과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협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다보니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같은 교수기술에서 연구참여자 본인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3.2.1.2 나와 다른 지도자

전국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소년 지도자들은 대한축구협회 등록팀 기준 학원팀 241명, 클럽팀 539명이며, 유소년 지도자수준의 자격증 발급 수는 D급 3,263명, C급 4,723명으로 나타났다. 선수출신의 지도자도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지만 비선수 출신의 지도자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10년 이상 선수경력을 마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유소년 지도자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시범능력과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기능적 지식) 높게 평가하지만, 선수출신이 아닌 비선수 출신의 유소년 지도자들을 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높이 사며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었다.

시범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선수들이 신뢰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비선수

출신의 장점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과거의 의식을 많이 못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지도자한테 그대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A 지도자 인터뷰 중)

순간순간 나오는 몸 동작이라던지 피드백을 줘야할 때 경험을 토대로 수정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반대로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언행은 비선수출신 지도자들한테 배울 게 많지. 전문적이진 못하더라도 선수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은 더 좋은 것 같아. (B 지도자 인터뷰 중)

연구참여자들은 시범능력과 훈련 이해도와 같은 실기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등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며, 어린 아이일수록 흥미 위주의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다. 선수경험을 한 초임 유소년 지도자들은 ‘나는 안그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선수시절 교육 받았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으며,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답답함을 많이 표현하였다. 이에 반해 비선수출신의 지도자들은 대학수업, 취미반 수업 경험 등을 통하여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고 통솔하는 방법을 터득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선수출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선수출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B-C급을 취득한 지도자이다. 지도자 교육을 들어가서는 기술적인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도자 교육 또는 지도자 재교육을 통한 교육의 방향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초·중고 지도자의 통합 교육내용이 아닌 어린 연령부터 세부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이다.

3.2.1.3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연구참여자들은 이 직업 안에서 지도자로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원인들은 직업적

처우의 문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유소년 지도자들이 처우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다.

불확실성. 현재에 대한 고용불안이 커요. 일반 직장인 하고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라던지 정년나 이가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다보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깊어지는 것 같고, 현재 계약이 1년 단위로 하다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C 지도자 인터뷰 중)

지도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하고 이후 지도자로서도 본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초임 유소년 지도자들은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었고, 짧은 선수 경력으로 일찍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여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로 인해 높은 꿈을 꾸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변 동료 지도자들이 선수들 지도하는 일을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일마저 적성에 안맞아 공사판으로 뛰어드는 모습들을 보고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교육계의 격언처럼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젊은 지도자들이 발전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팀이 운영은 되고는 있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처우가 계속되다 보면 이 직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타 직종으로의 이직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훈련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투자가 저하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르치는 선수들에게 감정이 전달되는 것들을 연구참여자들은 느끼며 반성하고 있었다. 이는 축구 지도자의 사기, 근무의욕, 효율성 등을 저하시키며 지도자의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손상시킬뿐더러 전반적으로 축구 지도력까지 약화시킨다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3.2.2 보람을 느끼다

3.2.2.1 니가 웃으면 나도 좋아

지도자 본인들의 노력들을 통하여 아이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신뢰도와 유대관계가 깊어졌다. 이를 통하여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는 발전적인 부분이 초임 지도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선수들과 신뢰감이 두텁게 쌓였다고 느낄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관계적인 부분에서 선수와 대화를 했을 때 자기 속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중략)... 나는 관계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게 가장 커. (A 지도자 인터뷰 중)

내가 지도하고 있는 동안에 선수들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선수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 해줬을 때, 그 부분들을 스스로 보완하려고 질문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실제 경기 상황 속에서 보여줬을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 나 또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D 지도자 인터뷰 중)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운동을 하며 지내왔던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이 게임중심의 즐거운 훈련을 구성하여 진행하다 보니 선수들이 훈련을 즐겨워하고 행복해하면서 관계가 쌓이고 라포가 형성되는 것에 보람을 느꼈으며, 지도자들은 지도한 선수들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이 선수들에게 제대로 수용된 것을 확인하며 선수들 스스로가 적용하여 응용하며 좋은 결과로 만들어졌을 때 열정과 성취감을 형성해 나아갔다. 아이들의 기쁨이 곧 지도자의 보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도자로서 보람과 성취감은 물질적이고 사회적 보상과 같은 인정보다는 지도를 받는 선수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지켜보는 데서 찾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지도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선수를 지도하기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축구지도자가 지닌 교육적인 책무(responsibility)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4]는 점에서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신뢰가 쌓인 관계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유소년 지도자들 또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3.2.2.2 고민 속에 성장하는 교수 기술

유소년을 지도하고 성인을 지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

가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은 지도 초기에 느끼지 못했던 유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험을 토대로 유소년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첫째는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자세, 둘째로는 모범을 보여야하는 거, 내가 애들한테 요구하는 건 많으면서 내가 정작 그렇게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A 지도자 인터뷰 중)

기다림? 인내심? 어린 선수들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번의 모습으로 평가 할 수가 없다고 느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D 지도자 인터뷰 중)

일반적으로는 전술이나 전략이 뛰어난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여지는 기능적 지식과 커리어는 별개의 문제이다. 유소년 지도자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지도자 본인을 롤모델처럼 생각하고 따라오려는지, 어떻게 하면 선수들과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교육의 성패로 보여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유소년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축구의 기능적인 부분, 유능한 전술과 전략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통, 모범, 언행,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자세, 인내심 등을 꼽았다. 유소년의 성장은 단기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면 좋은 선수,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 유소년은 작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선수의 발전 가능성을 통하여 선수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한순간에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현재 초임 지도자들 또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경험을 통하여 이런 중요성을 느끼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4. 논의

4.1 교수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자 교육내용 재구성

연구참여자들은 시범 능력과 훈련에 대한 이해도와 같은 실기 능력은 소유하고 있으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등 선수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박정길[15]은 교사 코치의 역량으로 전문성과 더불어

기다리며 지지하고 함께 해주기, 알아채기, 질문과 경청, 칭찬, 인정, 격려하기, 실행력이라 하였고, 코칭과 교육의 일맥상통한 개념은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을 갖추어 원만한 인격체가 형성되도록 이끌어준다는 점이라 말하며, 이런 측면에서 유소년 지도자들 역시 교육자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소통하고, 모범을 보이며 바른 언행과 아이들을 이해시키려는 역량을,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지도자들은 지도자 자격증 연수를 통해서 지도자의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습득하여 현장에 활용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산하기관인 대한축구협회 지도자(KFA ACADEMY)에서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다. 교육은 크게 컨디션닝(Conditioning), 필드(Field), GK, FUTSAL(풋살) 4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필드 지도자인 KFA D급 자격증은 대한축구협회(Korea Football Association)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지도자 프로그램이며 선수 경력과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격증 교육을 응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C급 자격증부터는 AFC(아시아축구연맹)에서 관할하여 선수 경력과 입상 경력 또는 D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지도 경력이 6개월 이상 채워지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유소년 축구지도자의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보면 KFA D급 라이선스는 만 8세 이하의 유소년팀을 지도할 수 있고 연수기간은 4일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AFC C급 라이선스는 초등학교 및 만 12세 이하 유소년 클럽팀을 지도할 수 있으며 총 2주간의 연수기간을 거쳐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KFA C급 지도자 교육교재(커리큘럼)를 보면 '이론'과 '실기'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실기는 축구의 전반적인 기초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다루며, 이론은 코칭의 방법과 원리, 유소년들을 위한 훈련, 축구기술, 축구경기에서의 중요한 상황, 팀 빌딩의 기초, 기본 전술과 전략이라는 이론적 목적을 가지고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보수교육(지도자 재교육)'도 마찬가지로 코칭 방법론적인 측면과 경기규칙, 심리학, 트레이닝론 등만을 다룰 뿐 실제 현장에 유소년 지도자들이 필요로 느끼는 어린선수와의 소통방법,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실기가 지도자 교육 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외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16]에서는 유소년 축구의 문화적 개선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축구의 기술, 전술, 체력적인 부분의 대한 교육의 강조가 아닌 청소년 축구의 중요성과 철학을 심어주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과 본인의 개성을 발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화방법, 상담방법, 경청법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선수와 학부모를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지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이처럼 양성과정에서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선수 출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초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육을 통하여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나 노력과는 다르게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장재식[17]은 초보코치들의 코칭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족을 언급하였고, 전문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코칭에 관련된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습 및 현장 경험도 필수적이라 말하였다. 실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도자들이 받았던 교육과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의 특징과 소통전략, 교수방법 등의 추가적인 교육 내용의 커리큘럼이 보완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선수출신 초임지도자들이 유소년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2 지도자 처우 개선

연구 결과 현장의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도자들이 직업적 발전에 한계를 느끼는 건 처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불확실함이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한계로 다가오고 있으니 처우 개선은 어떠한 문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유소년 축구지도자와 유사한 직업인 학교운동부 지도자, 코치들의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최영준[18]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가 안정적으로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을 때 학생선수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 현장에 지도자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직장에서 지도자 본연의 직무인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도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제안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결국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신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급여, 수당, 학부모의 간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고 이들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교육자로서 안정적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처우개선이 급선무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미, 이지연, 유용상[19]의 연구에서도 스포츠강사의 높은 고용불안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를 증가시키고, 직무전체를 상실할 가능성에 대한 스포츠 강사의 지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하여 불안과 초조, 사기저하, 분노 등의 심리적 긴장상태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제도와 낮은 보수, 고용불안 등은 스포츠강사의 낮은 근로 의욕을 가져오고 수업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며, 이런 스포츠 강사의 고용불안을 최소화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의 필요와 더불어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제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스포츠강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처우개선에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체육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20].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미약함이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의 지위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엘리트 체육 체계를 비교한 연구[1]에서는 독일의 코치 체계와 비교했을 때, 지도자 급간 체계 및 실효성의 부족과 현장 고용성의 문제로 인하여 위계구조와 연계성이 모호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현장 고용성의 문제에서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 시도체육회 지도자, 시도교육청 지도자 및 각급 운동부 지도자 등이 연계나 상승을 위한 위계의 구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지도와 책임감에 대한 동기부여 체계가 미약하며, 특히 발전적인 연구와 고민들로 만들어져야 할 수준별 연령별 프로그램의 부재와 더불어 전문성의 위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수를 구분하여 양성되는 지도자 자격 위계는 현장 고용성의 문제와 연계되어 큰 기능을 하지 못하며, 가장 첫 단계인 지도자 자격을 획득하고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그다음 단계인 지도자 승급을 할 동기부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급수 간 차이를 면밀하게 구분 짓지 못하여 부임 가능한 직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구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강윤[21]의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비합리적 행정, 과도한 업무, 학생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지나

친 간섭 등 축구지도자는 신체적, 정서적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고, 특히 축구지도자의 직무 여건 차원에서 볼 때, 과도한 체력 소모 등으로 직업적 전문성과 유인가(valence)를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 문제에서의 갈등은 수많은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1년 단위의 계약, 4대 보험 미적용 등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각종 리그, 대회 참여 등에 따라 보장받지 못한 휴식으로 삶과 일의 균형이 무너져가는 현실은 많은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로 하여금 직업적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초임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는 처우에 대한 문제로 대학팀이나 프로팀에서 영입 제의가 오면 곧장 이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년의 경력을 가진 축구 지도자 또한 처우에 대한 고충을 갖는다는 방증이다[22].

최근 한국축구는 발전을 위해 유소년 축구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데 반해 지도자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은 미흡하다는 것이 현장 지도자들의 목소리이다. 한국축구의 발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지도자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와 이로 인한 당장의 처우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처우 개선에 대한 일각에서의 작은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훗날 유소년 축구 지도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개선된 처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초임 지도자들은 처우 개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안주하기 보다는 초임이기에 이해받을 수 있는 많은 부족함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채워나가기 위한 발전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향후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현실적인 급여제와 휴식권 보장 및 일괄적인 4대 보험 적용 등 협회 차원에서도 지도자들의 고충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여 최소한의 복지에 의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면 추후 지도자를 직업인 목표로 가지고 임하는 인원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전문성 증진과 더불어 교육환경 또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초임 유소년 축구 지도자의 교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10년 이상 선수생활을 하고 5년 이하의 유소년 축구 지도경력을 가진 초임 지도자 중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에 참여한 유소년 축구지도자가 어떤 계기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는지에 탐색하였다. 대부분 과거 선수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보조교사로서 수행했던 경험을 통하여 지도자에 대한 뜻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나는 안 그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변화시키며, 좋은 지도자로서의 부담과 동시에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며 지도자를 시작하고 있었다.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험에만 의존한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해봄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속에 지도자로서 변화하고 노력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교수경험을 탐색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본인들 스스로 의사소통 방법,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갈등 측면에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이 직업 안에서 성장하는데 대한 동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지도자들이 발전하기 위하여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주말까지 반납한 과도한 업무에도 수당이 없는 ‘희생’을 강요받는 명과 암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축구 지도자는 아이들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신뢰도를 쌓아가는 과정과 선수들의 기량이 발전된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선수시절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유소년은 성인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유소년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며 유소년 선수들을 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는 환경적, 상황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우수성의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자격제도와 노력이나 팀에 대한 희생을 하는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으며,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부담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젊은 지도자들의 열정만으로 보완하는 운영체계 또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반대로 초임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 열정 등의 노력에 발맞추어, 대한축구협회, 각 시도 축구협회, 프

로축구연맹 등은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통하여 유소년 축구는 지도자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협회와 연맹 차원에서 지도자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운영 현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소년 축구 지도자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종목의 유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처우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계기로 현장을 개선하고 유소년 지도자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S. Lee & Y. P. Oh. (2006). The comparison of Elite Sports System between German and Korea. *Korea Journal of Sport Science*, 17(1), 131-140.
- [2] Korea Football Association. (2019). *Professional/club player registration status and team registration status*. Seoul : KFA.
- [3] KFA academy. (2020). *Leader training course*. Seoul : KFA
- [4] S. H. Cho. (2008). *An Analysis on Experiences of the Coaching in Middle School Soccer Coach*. paper of Masters degree. Dankook University, Cheonan.
- [5] S. W. Soug. (2013). *The Life-Experience Process of the Collegiate Soccer Instructor - A Grounded Theory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Snagji University, Wonju.
- [6] J. S. Park. (2012). *A proposal of optimal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Youth Football*. paper of Masters degree. Myongji University, Seoul.
- [7] S. I. Yoon.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occer Coaches' Role Awareness and Job Satisfaction*. paper of Masters degree. Suwon University, Hwaseong.
- [8] J. J. Lee. (2015). *The Study on the difficulties about School Athletic Instructor' job performance*. paper of Masters degree. Sogang University, Seoul.
- [9] T. H. Lee. (2010). *The Narrative Inquiry for the life of an Elementary School Sports Instructor*. paper of Masters degree. Daegu National University, Daegu.
- [10] S. J. Park. (2011). *Narrative inquiry on life of a elementary school sport instructor*. paper of Masters degree. Incheon University, Incheon.
- [11] D. Y. Yang. (2011). *The Competitive Study on the System and Program for U-18 Korean Soccer and Europe Soccer*. paper of Masters degree. Jeonju University, Jeonju.
- [12] J. H. Jeon. (2019).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Youth Sports Club Leader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13] J. M. Sim.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erceived by Youth Soccer Players and Their Athletic Performance*. paper of Masters degree. Chung-Ang University, Seoul.
- [14] Hanke, U. (1987). Cognitive aspects of interaction in physical education. In G. T. Barrette, R. S. Feingold, C. R. Rees, & M. Pieron (Eds.), *Myths, Models, and methods in sport pedagogy*(pp, 135-141).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15] J. K. Park. (2018). *The Development of A Teacher Coaching Model for Teacher-Student Interactio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16] B. Y. Lee. (2018). *The Direction for Invigorate and Operating Consideration on Youth Soccer System of Korea*. paper of Masters degree. DongGuk University, Seoul.
- [17] J. S. Jang, (2018). *A Study on the Difficulties and Overcoming Process of Novice Coaches in Coaching Sessions*. paper of Masters degree. Soongsil University, Seoul.
- [18] Y. J. Choi. (2019). *Coach of School Athlete's Voice of the Field for Betterment of Labor Condi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7(1), 61-73. DOI : 10.52427/KSSP.17.1.5
- [19] M. Gang. (2015). *The Effects of Employment Instability and Task Exhaust of Sports Instructor on Turnover Intention: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paper of Master degree. Ulsan University, Ulsan.
- [20] W. C. Back & J. J. Lee. (2010). *The Effect of Marketing Mix Strategi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in Boxing Club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9(3), 189-202.
UCI : G704-001369.2010.19.3.051
- [21] K. Y. Lee. (2009). *The impact of the job stress to the exhaustion and. resignations among soccer coaches in school*. paper of Masters degr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22] Y. H. Kuk. (2020). *Park, Kyunghoon "Korean football, nurturing leaders first"*. Sports chosun.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103160100127880008870&servicedate=20110315>

윤 주 석(Ju-Seok Yoon)

[학생회원]



- 2020년 2월 :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체육교육 석사)

- 관심분야 : 스포츠 사회학/축구
- E-Mail : jsyoon517@gmail.com

이 상 행(Sang-Haeng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전북대학교 생활체육학과(체육학석사)
-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생활체육학과(체육학박사)
- 1998년 3월~현재 :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골프/통계
- E-Mail : shlee@jj.ac.kr